

재난 속 동남아여, 희망을...



'쓰나미' 피해 지역에 부처님의 자비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각 종단 및 단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12월 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 종단이 힘을 모아 모금운동과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한데 이어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전국의 각 종단과 사찰 및 불교계 단체들의 활동도 왕성해지고 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지난 12월 30일 KBS를 방문해 성금 1억원을 기탁한데 이어 10억원을 목표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자비'

부다피아에서 백고좌법회가 1년 내내 열린다!



buddhania.com이 세계적인 포털로 거듭나며 이 시대의 큰 스님 100분의 생생한 동영상 법문을 보실수 있는 사이버 백고좌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월 12일부터 1년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지역이면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현장으로 직접 달려가는 종단과 개인·단체가 늘고 있으며, 모금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도 남부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JTS 활동가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왼쪽사진·제공=한국JTS). 오른쪽은 부산 여여선원의 목욕복합에 나온 불자들이 줄지어 성금을 보시하는 모습(사진=천미희 기자).

각 종단·단체 모금 활발 '자비의 손길' 전국 달궜 의료봉사단 파견·천도재 봉행, JTS 등 현지봉사 펼쳐

의 탁발 행진' 등을 포함한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조계종은 1월 31일까지 전국 사찰에 특별 불전함을 설치하고 ARS 전화(060-700-0482) 개설, '동남아시아에 자비의 손길을' 등의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를 부착·배포해 성금모금을 독려했다. 조계종은 동국대 의료원과 대불련 출신 의사들로 '자비의 불교의료봉사단'을 구성해 1월 중순부터 31일까지 스리랑카에 스님 2-3명과 의료진 20여명, 자원봉사자 5명 등 30여명을 파견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도 1월 5일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신년하례법

회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성금모금을 진행했으며, 각 종무원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12월 31일 중주MBC를 방문해 3천만원을 전달한 천태종(총무원장 윤석)은 1월 31일까지 전국사찰에서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진각종(총무원장 효암)은 12월 31일 최용수 과장과 위덕대에 유학중인 스리랑카 실라 스님을 현지로 파견해 피해복구 성금 1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한달동안 각 신당 별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쓰나미 피해와 관련, 직접 구호현장으로 뛰어드는 사찰과 개인, 단체가 늘고 있다.

스님은 파나두라 지역에서 매일 150~200여명의 식사를 인근 학교로 가져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인천지역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외국인노동자중 연락이 닿지 않는 52가족의 소재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1월말 추가 자원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 원각사 보리 스님은 연말연시 제야의등 행사시 모금한 1천만원을 들고 8일 스리랑카로 떠나 인도 콜롬보 켈라니아사원 마헨드라 스님과 콜롬보에서 120km떨어진 창갈라 지역의 사찰과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모기장과 매트, 고무호스를 전달했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도 열리고 있다. 부산 감로사와 참여불교운동본부는 1월 1일부터 지진, 해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49재를 봉행하고 있다. 관련기사5면 김원우·남동우 기자

“이후 일어날 모든 일은...”

지을 스님 단식 73일 넘기며 '신변 정리' 암시

지을 스님의 네번째 단식이 1월 7일 현재 73일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스님이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글을 천성산 홈페이지'에 올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을 스님은 1일 천성산 홈페이지에 올린 부산시교육위원회 박영관 위원의 글에 답하면서 "이후 일어날 모든 업무적인 일은 도통농 소송의 법적 대리인인 이동준 변호사와 손정현님, 선생님께서 돌봐주시라"고 했다. 스님은 또 동생 조경자씨가 3일 올린 글에 대해서도 "내가 떠나면 아마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아남을 몫을 똑똑히 하기 위해 마치 동지처럼 전사처럼 움직일 것이다"고 답했다.



"단식을 하면서 만든 '초록의 공명' CD를 통해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 마지막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법 스님이 1월 6일 지을 스님을 찾아 건강을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을 스님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경과와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을 스님은 <시민의신문>이 선정한 2004년 최고의 시민운동가로 뽑혔다. 기사 더 자세히 buddhanews.com 유철주 기자 ycj@buddhania.com

새연재안내	
나의 수행법	18면
원철 스님의 禪家 이야기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9면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 의학 산책	31면

현대불교 2004년 합본집 발간 <2면에 안내 사고>

‘할’

밀 멸심히 하고 도덕적중심 지키면
 앞방도
 없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아무리 빨라도 우리네 소만금
 바랄까요? 풀앞에 이슬이세요

지관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그림·조태호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향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이끌 영구독자를 모집합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TEL: 직통 (02) 737-0090 /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스마트폰 ‘아이넷’ 무료 증정

독자님들의 성원에 따라 선착순 1000명에 한하여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m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넷(-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 아이넷(-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 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넷(-BUD): 아이넷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초대합니다

하와이 무량사 개산 30주년 · 명원 다도원 개원 · 김덕수 사물패 초청 공연

2005년 개산 30주년을 맞는 하와이 무량사는 오랜 공사 끝에 문화원을 완공하여 한국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하와이 각계인사 및 동포 여러분들을 모시고 무량사 명원 다도원 개원과 김덕수 사물패 초청공연 그리고 김경 선생 초청 한지의상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 하와이에 한국 전통양식의 큰 문화원을 세워 전시관과 다도원을 개원하고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김덕수 사물패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한민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함이며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보내주시는 하와이 동포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와이 지역사회를 위해 무량사 문화원의 문을 활짝 열고 한국 다도의 증가 명원문화재단과 함께 다도원을 개원하여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소개하고 동포 2, 3세대에게 바른 예절, 사색하는 태도를 보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같이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번 무량사 명원 다도원 개원식과 김덕수 사물패 초청 기념공연 그리고 김경 선생 초청 전시회에 동포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 2005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무량사 문화원
 - 하와이 각계 인사 초청. 무량사 명원 다도원 개원
 - 상설 전시관 개관, 김경 선생 초청 한지의상 전시회
- 2005년 1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무량사 문화원
 - 무량사 한인 요양원 건립 축하, 김덕수 사물패 초청 비나리 공연
-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무량사 문화원
 - 법장 총무원장 큰스님 초청. 무량사 조계종 봉납법회
- 2005년 8월 11일 ~ 14일: 학술세미나
 - 주제: 지역사회를 위한 종교활동 방안
 -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2005년 9월 24일 (토요일)
 - 30주년 기념 산사 음악회
- 2005년 9월 25일 (일요일)
 - 무량사 한인 요양원 개원
 - 하와이 잇다라 대학 개교
 - 총무원장 큰스님 초청. 개산 30주년 기념 및 문화원 준공 법회

한국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 하와이 무량사 주지 권도현
 주소: 2420 Halelaau Place, Honolulu Hawaii 96816 / 전화: 735-7858 / 팩스: 732-6402